

# 광양시청 민원인 주차할 곳이 없다

### 청사 연면적 2만3000㎡에 주차 면수 고작 121면 하루 수백여명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불만 폭증

광양시청의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로부터 주차불만 여론이 거세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청사 내에 마련된 주차면적은 장애인 4면, 대형차 3면, 경차 2면을 포함해 총 121면에 달한다.

하지만 광양시청 공무원과 민원들의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청은 연면적 2만3000㎡에 1만3300㎡의 건축면적에서 550여명(정규직 423명, 무기 계약직 77명, 기간제 근무자 55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평균 수 백명의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다 보니 시청 안은 물론 시청 주변 도

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넘쳐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통합과 광양제철 및 관련 협력사 등의 기업유치에 꾸준히 늘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주차문제가 시청사 뿐만 아니라 시내 이면도로 등지에서 심각할 수준에 놓여있다.

특히 1991년 동광양시가 출범하면서 시청사 신축했으나 불과 25년이 지난 현재 주차면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가 이 같은 주차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인 이모(46·광양시 중마동)씨는 "시청에 민원을 보려고 주차할 곳을 찾으려면 공간이 없어 짜증을 넘어 불통이 터질때가 많다"면서 "차



광양시청내 불법주차 모습. 주차면이 부족하다보니 도로 등에 세워둔 차량들이 많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량 5부제 시행에도 지치지 않고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인 것 같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자동차 등록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은 김모(53)씨도 "차량을 세울 공간이 없어 시청인근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다"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철 회계과장은 "아직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게 없다"면서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곡성 공무원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 오후 6시 정시 퇴근

곡성군 공무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두 퇴근한다.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족 사랑의 날'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곡성군은 28일 출산 장려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모든 직원이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가족 사랑의 날'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려고 퇴근 8분 전 음악을 틀고, 5분 전에는 전 직원의 컴퓨터 시스템을 일제히 종료하고 있다. '가족 사랑의 날'은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은 9월 1일부터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 여수경찰,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주민 만족

### 상반기에만 7차례 실시

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여수시 화양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장과 화양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치안 보고회를 열었다.

여수경찰은 이날 2011년 중점 추진 업무인 ▲진찰한 경찰 ▲선진교통질서 조성 ▲범죄예방 확립 등에 대해 보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 청렴하고 맛있는 경찰

이 될것을 다짐했다. 여수경찰은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만 7회 연속으로 찾아가는 치안 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김재병 여수경찰서장은 "지역정성, 자체사고 제로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기쁨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긴 '지(至)성(誠)자(自)무(無)소·나·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한여름밤 예술무대 무더위 식힌다

### 순천·곡성 음악회 등 주민 문화의 장 만들어

순천과 곡성군이 주최하는 한여름의 음악축제가 주민들의 무더위를 식히는 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순천시는 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지난 8일 동천수변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30일 순천역 광장까지 야외 무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29일에는 순천역 광장에서 퓨전 콘서트, 한국무용, 대중가요, 시립극단의 연극이 열리며 30일은 퓨전국악, 댄스스포츠, 성악, 시립합창단 공연이 파날레를 장식하면서 뜨거웠던 일정을 마치게 된다.

올해 예술무대는 시립예술단과 지역예술단체가 출연 가요, 퓨전국악, 댄스, 마당극 등 다양한 예술무대와 공연 시작전 건강 상담, 흑두루미 페이스 페인팅, 특별 이벤



트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군도 다음달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별빛 밤하늘 열린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열린 음악회는 28일 죽동생활체육공원을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에는 옥과도서관, 11일 석곡대항강 코스모스 축제장에서 저녁 7시 30분에 각각 공연된다. 또 다음달 11일에는 동천곡예단

의 '테마서커스 NEW 흥길동'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지고, 전남도립음악미술관에서는 '덕수이씨기 선비들의 옛 편지'가 상설 전시로, 9월중에는 '2011광주시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전'이 기획전으로 펼쳐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밤 예술무대가 문화예술 향유의 장으로 생활의 활력과 세대간 소통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동부해역 8월의 수산물 '뱀장어'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추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는 28일 전남 동부해역에서 나는 '이달(8월)의 수산물'로 뱀장어를 추천했다.

뱀장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야맹증, 감기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 뱀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E는 체내의 불포화지방산의 산화 작용을 억제하고 혈관에 활력을 줘 피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수지소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매월 전남 동부해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수산물을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전 북

# 구시포·격포 방파제 확충

### 도 180억 투입 인양기 등 기반시설 늘리기로

전북도는 28일 어업인의 생산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반시설 및 편의 시설에 176억원을 투입해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주요 어항개발사업은 보편 국가어항인 구시포, 격포에 73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80m, 취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어항에는 개야, 방축, 공항, 송포항, 식도에 75억원을 투입 9월말 완료예정인 방파제 및

물량장 등 497m가 시설된다. 또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해 어업인들의 부족한 어촌의 노동력 해소 및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항내 다목적 인양기를 4억원씩 들여 군산, 고창, 부안에 8대를 이달말 완료 예정이다. 이밖에 도 서해안 조수간만 차이로

어선 상시 입·출항이 어려워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산, 부안지역에 부잔교 3대를 시설하고 있다.

전북도는 어항내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양육 등 단순기능을 위한 기반시설 외에도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어항기 설치사업, 부잔교 설치사업,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



28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한 '제13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먹음직스런 복숭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전주시에 전주농협은 당도가 높고 신선도가 좋은 복숭아를 시중보다 20~30% 싸게 판매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 부안수협 수산물 가공공장 HACCP 취득

### 어류·액젓·조미김 등 최첨단 위생관리

부안수협(조합장 김진태·사진)의 수산물 종합가공공장이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지정 받았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수협 수산물 종합가공공장이 최근 광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지정을 취득했다.

부안수협은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어류 및 조미김,액젓 등의 제조·가공이 가

능한 연면적 2367㎡ 규모의 종합가공공장을 건립했으며 그동안 바닷마트 수협소형 판매활동과 미국, 중국 수출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부안군 특산물인 병을 이용해 병입 절임 고등어와 맛김 등 특화된 수산물식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처럼 다년간 쌓아온 수산물 가공능력 및 지속적인 시설개보수를 통해 최첨단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 지정을 쾌거를 달성했다.



부안수협 관계자는 "최첨단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 지정을 발판으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가 제공되고 조합원들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수협은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출자 배당도 4년째 계속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군산해경, 선원 선급금 사기 피해 주의보

어선을 타고 일을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선주로부터 선급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사기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경찰서는 28일 "서민 경제 침해를 막고자 최근 특별단속을

벌어 10명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K씨(39)는 "1년간 선장으로 근무하겠다"며 선주에게 접근해 1600만원을 받은 뒤 이

를 지키지 않았고, P씨(51)는 "조업한 달치를 전량 납품하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해경은 또 한 명의 선원이 수십 명의 선주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지역해경에 접수된 선급금 사기 사례를 대조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뉴스 브리핑

###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곤충나라 탐험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다음달 21일까지 전주시 교통 박물관 1층 특별체험장에서 '여름방학 곤충나라 탐험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수풍뎅이의 애벌레와 성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외국 곤충 150여종을 '세계의 화려한 곤충 표본 전시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나비목벌이 만들기와 장수풍뎅이 경우, 곤충화석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하천에 서식하는 돌고기와 물방개 등을 관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장산단, 군산2산단으로 명칭 변경

군산의 군장 국가산업단지(군산2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군산시는 군산과 장항을 뜻하는 군장 국가 산단의 개발계획이 2007년 장항지역의 개발 취소로 '군장'의 의미가 사라진 만큼 국토해양부에 '군산2산단'으로 명

칭 변경을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투자 유치 홍보자료 및 산업단지 관련된 모든 발표나 보도자료, 세만금과 연계한 국내의 홍보에도 군장 산업단지 대신 군산2국가산단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전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첫 심의

전주시는 "전주 만성동과 중동 및 완주군 이서면 일원의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공동주택 단지에 처음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심의가 신청돼, 아파트 공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심의를 신청한 공동주택은 우미

건설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지하1층 지상25층 전용면적 85㎡(구 34평형) 680세대로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심의가 통과될 경우 우미건설은 다음달 중순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쳐 아파트 분양을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임실치즈과학연구소-금산인삼약초연구협약

전북 임실치즈과학연구소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28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연구는 물론 정보교류 촉진, 협력사

업 추진,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상호간 연구역량과 능력을 발전시켜 고품질의 신제품 개발의 결실을 맺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